

# 복합틱장애 증상이 있는 딸을 둔 부부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 A Case Study on Family Therapy for Parents with a Daughter Suffering from Multiple Tic Disorder

박태영(Tai Young Park), 유진희(Jin Hui Yu)\*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

###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a counseling case in which a mother requested counseling due to the problems of her daughter, who suffers from multiple tic disorder.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included five family members (grandmother, father, mother and two female children) and a total of 23 sessions were held from September 2006 to December 2007. Additional counseling (24<sup>th</sup> counseling session) was conducted on April 1st, 2009. The data was based on recorded transcripts and notes from 24 family therapy sessions. The study used a constant comparative analysis, which uses matrix and network display as an analysis method suggested by Miles & Huberman(1994).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mily of origin and the indifference of the husband had caused the wife stress. The couple had frequent conflicts due to dysfunctional communication methods, a clash of values, sexual dissatisfaction, and a lack of communication. This marital conflict became the primary factor of the daughter's multiple tic disorder. Intervention of the family therapist resulted in the setting of treatment goals based on MRI's communication theory and Bowen's family systems theor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daughter's multiple tic disorder. Also, the therapist's intervention techniques included exploring experiences with the family of origin, shedding light on the 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exploring dysfunctional attempts at solutions, the therapist's self-disclosure, providing similar cases, dealing with resistance, and suggesting a new communication method. To solve the problem, the therapist helped the family separate the daughter spatially from her parents. Therefore, the therapist's intervention helped reduce the daughter's tics and improve relationships among the family.

---

▲주제어(Key Words) : 복합틱장애(multiple tic disorder), 원가족(family of origin), 자아미분화(undifferentiation of self), 가족치료(family therapy)

### I. 서론

급속한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되었고, 부부갈등, 부모자녀간의 갈등, 자녀의 문제행동 등 가족문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문제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자녀는 심한 충격과 정서적으로 불안을

---

• 본 논문은 2012년 한국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Jin Hui Yu,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511, Sangdo-dong, Dongjak-gu, Seoul 156-743, Korea, tel: +82-2-820-0506, E-mail: kcwel@hanmail.net

경험하게 되고, 이는 곧 다양한 문제행동으로 표출되었다. 아동의 학습장애, ADHD, 틱(Tic) 등 다양한 정신장애 유병률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가족문제는 자녀가 성장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아동기는 정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하는 시기로 부모와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다양한 문제행동이 표출되고, 이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아동의 성장과 더불어 더 큰 사회적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행동을 유발한다(Ha, 2004: 1). 이러한 문제행동 중 틱증상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비율, 동적인 근육 운동이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흔히 눈 깜빡임, 콩콩대기, 흠뻑과 같은 헛기침 등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복합틱장애는 자신을 때리기,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만지기, 욕설 뱉기 등 복합적인 근육과 음성 틱으로 나타난다(Lee, 2009: 387).

이렇듯 틱장애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 자녀가 일상생활을 하고 사회적응을 함에 있어서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틱장애 아동은 일반 아동에 비해 자신의 가족분위기를 불안한 것으로 지각하고 가정환경 속에서 부모는 자신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이미지로 느끼며, 가족환경에 대한 불만감으로 인해 내재된 불안과 긴장감이 높다(Kim, 2004: 11). 그리고 틱장애 증상이 있는 아동의 가정환경은 일반아동의 가정환경보다 아동의 욕구를 만족 시켜주는 정서적 분위기 자극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5: 47). 또한 틱장애는 유전적·기질적 요인보다 심리적·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Lee, 2002: 134). 가족 내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며 성장하는 자녀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갈등을 자녀가 경험하면 극심한 불안감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틱장애를 유발시킨다(Jo & Kong, 2005: 42). 이뿐만 아니라 자녀가 부모갈등의 정도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녀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이 높게 나타났다(Jang & Lee, 2011: 183), 여러 가족치료 사례연구들도 부모갈등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의 외현화·내현화 등 다양한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Moon, 2010a: 57; Park & Moon, 2010b: 127; Park & Park, 2010: 52; Park & Yu, 2012a: 131, Park & Yu, 2012b: 247). 이와 같이 아동은 가족환경을 주도하는 부모의 영향을 받으며 정서적·사회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가족환경 체계는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관계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며, 의사소통을 통해서 부모-자녀는 상호작용을 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가정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원활한 의사소통은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갖게 한다(Park, 2008: 230). 이렇듯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족구

성원들 간의 기능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잘못된 의사소통으로 자녀의 심리적 갈등을 심화시키거나 심리적 긴장을 유발시켜 건전한 인격체로서 성장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비행, 공격성 등 아동의 문제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Kim, 2012: 43). 또한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의사소통은 대부분 자녀의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Yang & Park, 2004: 858). 더불어 부부간의 갈등 또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가 부부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부모자녀간의 문제형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자녀가 문제행동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Jang & Lee, 2011: 199). 이렇듯 부모자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틱장애 증상에 대해 가족환경 내에서 원가족 경험과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고 개입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복합 틱장애 증상은 조기개입과 치료가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의학적인 진단과 진료를 통해 약물로 치료해야 효과적이라고 본다(Sim et al., 2007: 11). 그러나 약물 치료로 인한 우울, 불안 및 신경학적 행동 등의 부작용 위험성과(Song et al., 2011: 38) 약물을 복용하면서도 증상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Lee, 2009: 34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치료를 통해 복합 틱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딸)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과 치료자의 개입방법을 통해 문제행동을 보이는 내담자와 가족구성원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가족치료의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치료자의 개입방법과 연구결과를 통해 틱증상을 보이는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틱장애가 있는 자녀의 대한 가족치료적 개입은 실천 현장에서 실천가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 II. 이론적 배경

### 1. Bowen의 가족체계이론

Bowen의 가족치료이론은 8가지 개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아분화, 삼각관계, 핵가족정서체계, 가족 투사과정, 다세대전수과정, 형제지위 등 핵가족과 확대가족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과정과 가족과 사회에서 세대를 통해 일어나는 정서과정을 설명하는 정서적 단절, 사회적 퇴행이 있다. 특히

이 중 자아분화는 Bowen의 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가족체계 내에서 개별성과 연합성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고 사고와 감정체계를 넘나들면서 스스로를 통제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 기능을 잘할 수 있으려면 원가족에서 분화되어 핵가족과 확대가족간의 독립성을 발달시키면서 가족 간의 유대관계는 존속해야 하는 것이다(Lee et al., 2008: 137). Bowen은 개인주의적 접근과는 달리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았는데 한 개인을 가족이라는 전체 체계의 한 부분으로 보고 전체 가족체계를 중심으로 가족을 하나의 정서단위로 묶어서 보았다(Kim, 2002: 328). 특히 가족의 분화수준은 개인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며, 원가족에서 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가족체계는 적응적이고 융통성이 있으며 감정적으로 밀착되거나 융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원가족에서 미분화된 사람은 정서적으로 쉽게 다른 사람들과 융합하여 감정체계를 만들려고 한다. 이는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애착문제로 인해 성인이 되어 자신의 가족을 이룬 뒤에도 원가족에서 미분화된 관계 특성을 반복하게 된다(Nichols & Schwartz, 2012).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서로 감정적으로 의존하려고 하며, 삼각관계를 형성하여 불안을 줄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가족의 정서체계를 혼란스럽게 하여 증상을 나타나게 한다. 즉, Bowen(1976)의 가족치료의 핵심은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보다 높은 수준의 자아분화를 향해 미분화된 가족자아군으로부터 해방을 이루게 하고, 인지적인 기능과 정서적인 기능을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삼각화 상태에서부터 탈삼각화시키고, 정서적 단절을 개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치료의 준거틀로 적용하여 복합틱장애 증상을 보이는 자녀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부모의 원가족 경험을 토대로 하여 가족체계적 상호작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MRI의 의사소통이론

MRI의 의사소통이론은 현재 내담자에게 나타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두며, 내담자가 생활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효과적으로 내담자가 제시하고 있는 불평을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Shoham, Rohrbaugh, & Patterson, 1995). 또한 MRI모델은 내담자가 제안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분명한 묘사를 얻고, 시도된 해결책에 대한 공통된 특징과 취지를 발견하여 치료자의 개입을 통해 새로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치료의 중심된 과업이다(Schlanger & Anger-Diaz, 1999).

MRI 집단에 따르면 가족의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가족의 시도에 의해 오히려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MRI 집단은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상호작용의 과정을 강조하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모든 행동은 사회체계 내에서 더 폭넓게 진

행되는 의사소통의 교류 가운데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Duncan, Solovey, & Rusk, 1993). 또한 어려움을 잘못 다루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의 실패와 똑같은 문제해결방식의 계속적인 적용,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 문제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본다(Watzlawick, Weakland, & Fisch, 1974). 따라서 치료자는 문제해결을 위해 새로운 행동으로 기존의 행동을 대체하거나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새로운 해결책을 소개하는 일차적인 임무를 갖는다(Weakland, 1993).

본 사례에서 치료자는 MRI의 의사소통이론을 바탕으로 가족구성원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을 탐색하고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해결방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자녀의 문제를 완화하고 가족관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치료적 개입을 하였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상담 기간

본 연구에 참여한 가족은 부모, 딸 2명으로 구성된 4명의 핵가족과 조모를 포함하여 총 5명으로 상담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3회기 실시하였다. 그리고, 추후상담을 2009년 4월에 1회 실시하여 총 24회기로 개별상담, 부부상담,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가족상담으로 진행되었다. (1회기: 부모와 첫째딸, 2-3회기: 모, 4-5회기: 부, 6-7회기: 부부, 8회기: 조모, 9회기: 첫째딸, 10회기: 조모, 11회기: 부, 12-13회기: 모, 14-16회기: 부부, 17-18회기: 모와 첫째딸, 19회기: 부, 20-21회기: 모, 22회기: 부, 23-24회기: 부부)

### 2. 연구질문

내담자의 가족과 합의된 상담목표는 내담자의 복합틱장애 증상을 완화하고 밀착된 부의 원가족과의 분화,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통해 부부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연구문제 1> 내담자의 복합틱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복합틱장애 증상을 가진 내담자 가족에 대한 치료자의 개입방법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복합틱장애 증상을 가진 내담자 가족에 대한 치료개입의 효과성은 무엇인가?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내담자의 복합틱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과 치료자의 개입방법, 치료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질적 자료분석방법 가운데 사례연구를 적용하였다. 연구자는 치료자가 적용한 Bowen의 가족체계이론과 MRI의 의사소통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가족체계 내에서 나타나는 원가족의 문제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상호작용 방식에 대해 분석을 하고 개념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치료자와 연구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치료자의 축어록, 상담 중 기록한 상담일지, 메모를 함께 활용하여 지속적인 비교분석방법을 통해 연구질문과 관련 있는 주제들을 파악하고 개념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개념을 치료자의 피드백을 통해 다시 자료 전체를 비교하면서 재구성하였고 새로운 개념을 추출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각각 범주화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개방코딩 과정을 거쳐 상위범주와 하위범주를 발견하였고 각각의 범주에 대한 내용들은 내담자와 가족들이 진술한 내용을 인용문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내담자의 복합 틱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과 치료자의 개입 방법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들을 확인하고 공통점에 따라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렇듯 연구자는 24회기의 상담축어록과 상담 시 기록한 메모를 근거로 하여 복잡한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질적 데이터를 디스플레이하는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가족치료의 효과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Miles와 Huberman(1994)이 제안한 매트릭스와 네트워크 방법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매트릭스를 통

해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가족치료 개입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변화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명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네트워크를 통해 본 사례의 전체적인 분석틀과 개념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복합 틱장애 증상을 보이는 자녀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였고 치료자의 개입을 통한 가족치료의 효과성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 4. 신뢰도 검증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분석 결과에 대해 가족치료와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연구자의 삼각화와 상담축어록, 상담메모, 상담녹화자료를 사용하여 자료의 삼각화를 실시하여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한 연구자는 윤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담내용 사용에 대해 내담자에게 사전에 동의의를 구하였으며, 연구분석에 있어서 연구참여자의 사생활이 드러날 수 있는 불필요한 개인적 정보는 생략하고 삭제하였으며 자료의 모든 이름은 \*\*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 5. 사례개요

본 연구는 가만히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책상을 심하게 치고, 눈을 깜박거리고, 몸을 꼬고, 소리를 지르는 등 7살 때부터 복합틱장애 증상을 보이는 딸(9)의 문제로 모(36)가 상담을 의뢰하여 개입한 사례이다. 내담자1)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부정적인 지적을 많이 당해 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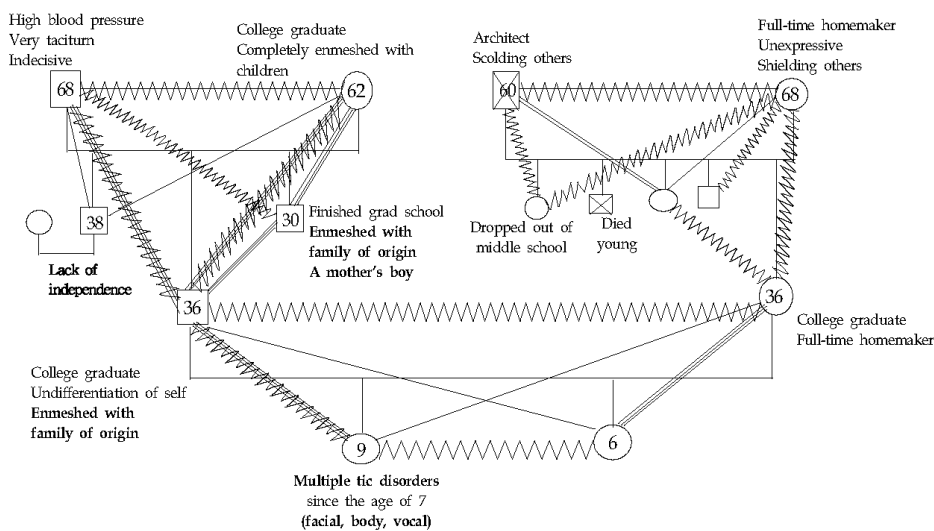


Figure 1. Genogram

1) 복합틱장애를 보이는 딸(8)을 '내담자', 내담자의 어머니를 '모', 내담자의 아버지를 '부', 내담자의 할머니를 '조모'로 표기한다.

를 받았으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가족들에게 내놓아도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았다. 또한 거의 매일 늦은 귀가로 부는 자녀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밀착된 부의 원가족 경험은 세대 간 전수되어 자녀에게 영향을 미쳤다. 부의 원가족은 매우 밀착된 관계로 정서적,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지 않았으며, 조모는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좌지우지하였다.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진지 20년이 되었고 시어머니는 여장부 스타일로 과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였다. 과도한 역할을 하는 부와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조모,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모로 인해 가족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Figure 1> 참조).

IV. 연구결과

1. 내담자의 복합틱장애에 영향을 미친 요인

내담자의 복합틱장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의 원가족 경험, 부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잦은 부부싸움으로 나타났으며 <Table 1>과 같이 10개의 하위범주, 3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父)의 원가족 경험

부의 원가족은 매우 밀착된 관계로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조모가 좌지우지하였다. 특히 조모가 서울로

Table 1. Factors that Influenced the Client's Multiple Tic Disorder

Higher Category	Lower Category	Concepts	
The father's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Undifferentiated father	· father had to visit his parents in the same apartment building. played an excessive role in the family of origin	
	Grandmother's excessive interference	· grandmother had to know every single details about her children and interfered in every single thing so the mother could not have any privacy	
	Grandmother'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method	· father pursued perfection in everything, so self-conscious that he suppressed his anger outside but vented his anger on his family, used dysfunctional criticizing expression method, which was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Enmeshed brotherhood	· father spent more time with his brother than with his wife and children and had a very enmeshed relationship with his brother	
	Excessive religiosity	· father was impious and did not believe in religion because of grandmother's excessive religiosity	
Parent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method	Browbeating	· father browbeated his children in front of other people	
	Father'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method	Emotional and impulsive expression	· father unplanned and always acted out on a whim
		Indecisive expression	· father never refused when others asked him a flavor, hesitant and indecisive
		Criticizing	· self-conscious father criticized trivial things, such as how his wife dressed
	Mother'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method	Disregarding	· father always disregarded his wife
		Keeping silence	· mother shut her mouth for a week once she got mad
		Yelling	· mother did not care about people around her and yelled
		Refuting instead of accepting	· mother refuted without accepting whenever she had a conversation
		Abrupt manners	· mother was unresponsive and not interested when others talked, and was not friendly to others and lacked charm
	Inflexible expression	· mother was stubborn and never accepted what she once thought was wrong.	
Parents' frequent conflicts	Clash of values	· father emphasized being self-conscious and appearances, while mother did not care about being self-conscious at all. Conflicts were caused by different values (father did not have economic concept, and mother had to take care of after-measures)	
	Sexual dissatisfaction	· father's sexual needs were not met because when he wanted to have sexual relations, his wife refused to have sex saying that she is sick	
	Lack of conversation	· standards were so different that they could not have a basic conversation at all and frustration toward each other increased	

올라와 같은 아파트 아래층에 거주하면서 부는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지 못하였고 부는 원가족과 더욱더 밀착되었다.

#### (1) 분화되지 않은 남편

조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부와 남동생은 자립심이 부족하였고 조모의 간섭이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부는 원가족 내에서 과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모의 입장을 이해하기 보다는 원가족의 입장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엄마> 결혼해서 이런 사람의 유형을 만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해서도 수시로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이 가질 때는 하루에 열 번씩 전화하시고. 불안하셔서 괜찮냐? 하고 물어보고 그런 게 처음에는 힘들었고, 이제 십년이 지나 어머니에 대해서 잘 아니까 불편하기보다는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하는 문제가 있죠. <치료자> \*\*이 어머니가 그런 시대 문제 있어서 잘 대처해오셨는데.. <엄마> 맨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전화 올 까봐. 지금 어디 갔다온다 말하면 되는데 그 때는 어디 갔다오니 하고 물어보시면 말하는 게 좀 힘들었는데.. 맨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고 왜 그러실까 생각도 해보고”(엄마-2회기)

#### (2) 조모의 심한 간섭

내담자 가족은 매주 시부모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특히 모는 자식들의 모든 일을 일일이 보고받고 알아야 하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시어머니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부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모를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무시하고 비판하였다.

“<치료자> 사사건건 간섭이세요? <아빠> 어머니가 지방에 계셨는데 한 7년 정도 떨어져 지낸 거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리모콘 좀 그만 만지라고. 전화기가 리모콘이에요. 전화로 늘 동태를 감시하니까. 지금은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가냐 이런 식이니까 <치료자> 하루에 몇 번 씩 전화오세요? <아빠> 한창 심할 때는 뭐..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오시죠.”(아빠-5회)

#### (3) 조모의 역기능적인 표현방식

조모는 모든 일에 있어서 완벽을 추구하고 남의 이목을 중시하였다. 특히 조모는 밖에서는 화를 참고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했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화풀이를 하며, 비난, 지적을 하는 등 역기능적인 표현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조모의 표현방식은 부에게 전수되어 부부갈등과 자녀문제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엄마> 사람들 앞에서는 지적을 안 하시는데 집에 오시면 좀 그러시는 게 있죠. \*\*이 대할 때도 굉장히 잘 대해주는데 좀 이렇게 얘기할 때 저건 좀 이렇고 이건 좀 그렇고 얘기하시고. (중략) 애들한테 막 화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 화나시면 꼭 표현하셔야 직성이 풀리시니까.”(부부-15회기)

#### (4) 밀착관계의 시동생

부는 남동생과 밀착된 관계로 자녀들과 놀아주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남동생과 보냈다. 이로 인해 모는 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들 역시 부와 관계가 소원하였다. 이렇듯 부는 원가족과 정서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러한 부를 모는 이해하지 못하고 서운한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엄마> 시동생이 비자 받으러 외국에서 다시 왔어요. (중략) 동생이 오랜만에 외국에서 온 것도 있지만 같이 살 때도 찰떡도 그런 찰떡도 없으니까 좋은 찰떡에 가서 둘이 마시고 온다던지 <치료자> 형수 모시고 가는 것도 없어요? <엄마> 예. 둘이 워낙 좋으니까 <치료자> 그럼 남편이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안 그래요? <엄마> 형제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통하고 저한테 같이 가자고 해도 전 애들이 있으니까 못 가고 그러는데.. 둘이 분리가 안 되니까 전 힘들죠.”(엄마-20회기)

#### (5) 과도한 신앙생활

조모는 자식들에게 강압적으로 기독교를 믿을 것을 강요하였고 자식들이 교회에 가지 않으면 큰 벌을 받는 것처럼 항상 감시하듯이 교회에 데리고 다녔다. 이렇듯 조모의 과도한 신앙생활은 오히려 자식들이 종교에 대해 반항심을 갖게 하였으며 이러한 부의 원가족 경험은 결국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엄마> 제 생각엔 어머니가 기복신앙이신 것 같아요. (중략) 어머니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십일조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십일조 다 안 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전 남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치료자> 정죄하신다는 거잖아요. <엄마> 이렇다 저렇다는 안 하시지만 그런 면이 강하게 있으시죠. 주일에 교회 못 가면 주일을 범했다고 그러시는 거죠.”(엄마- 20회기)

2) 부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1) 부(父)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은 욱박지르기,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표현하기, 우유부단함, 지적하기, 무시하기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부의 방식으로 인하여 부부는 잦은 싸움을 하였고 부부간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① 욱박지르기

부는 주변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화가 나면 큰 소리를 지르며 욱박지르는 표현방식을 사용하였다.

“<엄마> 그냥 욱박지르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 볼래~ 하고 하루에 딱 한 개만 알려주면 제가 연습해서 단계별로 할 텐데.. (중략)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짝악~ 지가 하는 방식대로 빨리 가르치고 제가 못 따라가면 뭐라하는 거예요. <치료자> 구박하시는 거죠? <엄마> 구박뿐만 아니라 절 마치 죄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엄마-19회기)

②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표현

부는 항상 본인의 기분이 내키는 대로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모와는 반대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기분에 따라 진행을 하고 이에 부인이 맞춰주지 못하면 화를 내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

“<엄마> 애들도 어디다 맡겨야 하고.. 그런 거 미리 상의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설득했다라면 우리 (결혼) 십 주년이니까 의미있게 보내자. 애들 어디에 보내고 멋지게 지내보자 그러면 그럴 수 있는데... 차 마시면서 맛없다 어찌고 저찌고 이러더니 우리 호텔 갈래? 이러니까 하하하하. 갑자기 머리 맞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저는 즉흥적인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중략) <치료자> 남편하고 함께 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엄마> 그럼요. 호텔 이미지가 불륜 이미지가 좀 있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홉시에 들어간다고 하면 아홉시에 와야 하는데 그 때 제가 9시 25분쯤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난리난 거예요.”(부부-6회기)

③ 우유부단한 표현

체면을 중요시 생각하는 부는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부는 어떤 일이든 남이 하는 부탁은 거절하지 못하고 혼자서 어물거리며 망설이기만 하고 결정하지 못해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는 고스란

히 가족들에게 전과되었다.

“<엄마> (남편이) 원래 일 많고 다른 사람 일도 다 해주는 성격이니까. 내가 봐도 참.. 착해요. <치료자> \*\*이 아빠 같은 경우 노(NO)를 못 하세요? <아빠> 거절이요? 인간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노를 못 하죠.”(아빠-7회기)

④ 지적하기

모의 모든 것들이 맘에 들지 않는 부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모가 하는 모든 행동을 사사건건 지적하였고 못마땅해 했다.

“<엄마> 굳이 남편이 싫어하는 옷을 입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골라주면 되잖아요. 감각이 있는 사람이 사주거나 입혀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입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가르쳐야 아느냐는 등, 사람은 다 타고난 재능이 다르고 당신이 시각적으로 발달되었으면 나에게 알려주면 되지 않느냐, 내가 발달이 안 된 사람인데.. 내가 발달된 사람 눈에 맞추려면 그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꾸 알려주다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교육에 의해서 배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되지 않을까 희망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절망이예요~ 너는 가르쳐도 안 돼 하면서”(부부-6회기)

⑤ 무시하기

부는 모의 행동을 이해하지 않으려 했고 모를 무시하는 표현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로 인해 모는 상처를 많이 받았으며 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늘었고 지속적인 갈등관계를 유지하였다.

“<엄마> 기본적으로 남편이 이해가 안 돼요. 항상 남편은 저보고 멍충하고 답답하고 벽창호갈다고 저를 매도하는 거예요.”(첫째딸과 엄마-18회기)

(2) 모(母)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은 침묵하기, 소리지르기, 수용하지 않고 맞받아치기, 애교가 없고 무뚝뚝함, 융통성이 없음으로 분석되었다. 모는 분화가 잘 된 원가족에서 성장하였지만, 결혼을 하면서 밀착된 부의 원가족과 출산 후 건강악화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으로 표출되었다.

① 침묵하기

부의 대한 불만은 잦은 싸움으로 이어졌고 모는 한번 화가 나면 일주일도 지나도 말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회피하

며 입을 닫아버렸다. 이러한 표현방식은 부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부 역시 대화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엄마> 저희는 무난한데 그래도 한 번 들어질 때는 좀.. 저는 딱 말을 안 해버리거든요. 신혼 초에는 하루 이틀 정도? 이쪽에서 불편하니까 뭐~ 요즘에는 서로 오래 살다 보니까 남편도 저를 좀 닮아가나봐요. 서로 일주일이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엄마-2회기)

② 소리지르기

모는 한번 화가 나면 주변 사람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폭발하는 표현방식을 사용하였다. 자주 반복되는 모의 이러한 표현방식은 부를 자극하였고, 화나게 만들었다.

“<아빠> \*\*이 캠프 문제로 싸웠는데 (애 엄마가) 차 안에서 소리 뽐 지르고 <치료자> 시부모님이 계신데요? <아빠> 예. 제가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근데 집 사람은 기억 못 하고. 예전에 처갓집 가서도 \*\*이가 애 기일 때 갔는데 애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전 \*\*이 엄마보고 \*\*이 보라고 했는데. 애를 잘 보고 있어야 하고 화냈는데 애 엄마가 슈퍼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전 그게 제일 싫거든요. 부모님 앞에서 화 내는 것도 싫어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그 때는 그냥.”(부부-16회기)

③ 수용하지 않고 맞받아치기

모는 부와 대화를 할 때 본인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부의 생각을 수용하고 이해주는 것이 아니라 맞받아침으로써 부를 자극하였다. 부부는 서로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맞대응함으로써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좁히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단 한 번도 부의 의견을 받아주지 않는 모의 표현방식으로 인하여 부부는 잦은 싸움을 하였다.

“<아빠> 제가 보기엔 한 가지 사항을 보고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게 일단 좀 불분명한 것 같고 저는 갈등이 있을 때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남자답게 한 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안했어! 하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열 번 그러면 열 번 다 받아치니까 나중에 그게 연기되는 거죠.”(부모와 첫째딸-1회기)

④ 애교없이 무뚝뚝한 표현

부는 모가 여성스럽고 애교가 있길 바랬지만 모는 부에 살갑게 대하지 않았으며 애교가 전혀 없었다. 또한 부가 어

떤 이야기를 해도 모는 반응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으며 무뚝뚝하게 반응하여 부를 더욱 자극하였다.

“<아빠> 사람이라면 때로는 한 군데에 집착하고 휘어 차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양탈도 부리고 애교도 부리고 너무 그런 게 없으니까 <치료자> 서운한 마음이 드세요? <아빠> 제가 얘기하다가도 그럴 거면 나랑 결혼 왜 했냐? 제가 빈정거리듯이 얘기하면 별 반응도 없고.. 그냥 살다보니까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아빠-5회기)

⑤ 융통성이 없고 답답한 표현

모는 고집이 세고 한번 아니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모의 표현방식으로 인해 부는 모를 답답하게 생각했으며 무시하였다.

“<치료자> \*\*이 어머니가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이 없으시네요? <아빠> 그렇죠. 겉으로 보는 거와 달라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와이프 좋다고 어떻게 참한 여자 만났냐고 그러는데 전 속이 터지죠. 자기 고집이 강해요. 애들한테 강압적인 면도 있고요.”(아빠-5회기)

3) 부모의 잦은 싸움

부부간의 가치관과 기준의 차이로 인해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는 곧 잦은 부부 싸움으로 이어졌다.

(1) 가치관의 상충

부는 미대 출신으로 화려하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여성스러운 성격이었다. 또한 체면을 중시하고 외모, 걸치레에 관심이 많은 반면 부와는 달리 모는 체면에는 전혀 신경쓰지 않는 털털한 성격이었다. 더불어 모는 경제적 개념이 없는 부의 뒷감당을 항상 해야 했고 이러한 부에 대해 항상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듯 부부는 서로 생각하는 가치관과 기준이 너무나 상반되어 항상 갈등을 빚었다.

“<엄마> 남편이 제주도에서 외제차를 렌트한 거예요. 이 여행도 마일리지 있어서 공짜로 간 건데 남편이 외제차를 렌트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딱 1대 있는 차예요. 전 이해가 안 가요. 평상시에도 제주도 여행 가면 그거 빌려서 막 드라이브 하고~ <치료자> 남편이 그런 걸치레를 좋아하세요? <엄마> 엄청 좋아해요~ 전 그거 갖고 뭐라 말하고 싶었지만 말 안 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것이 원체 그게 자기 꿈이었으니까 하하하하” (엄마-13회기)



(2) 성생활의 불만족

전업주부인 모는 털털한 성격으로 남성스러웠으며, 첫째 딸을 낳으면서 난산을 해 건강이 악화되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을 느꼈다. 이와 같은 모의 건강악화와 더불어 모는 초저녁잠이 많은 반면에 부는 늦은 귀가를 하여 두 사람 간의 성생활이 맞지 않았다. 따라서 부는 성생활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이러한 부의 불만스러운 성생활은 부부갈등으로 이어졌다.

“<아빠> 몸이 아파서 못 응해줄 경우 손으로 해줄 경우도 있고 제가 밖에 나가서 해결할게 하고 거실에서 불끄고 한 적도 있고.. 요즘은 알아서.”(아빠-4회기)

(3) 대화 단절

신혼 초 부부는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대화도 자주 하였으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부의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부부는 대화할 시간이 없었으며, 부의 늦은 귀가로 인해 모는 자녀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부는 집에 일찍 귀가해도 항상 자고 있는 부인을 보면 화가 났고 대화가 전혀 되질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치료자> \*\*이 엄마하고 본인들 얘기는 하세요? 애들 얘기 말고. <아빠> 제가 보기에는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 기회가 적으니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거리 같은 게 좀 있어요. 얘기는 해도 깊이가 없어요.”(아빠-4회기)

2. 복합틱장애 증상을 가진 내담자가족에 대한 치료자의 개입방법

부부갈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딸의 복합틱장애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자는 치료목표를 설정하고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여 부의 원가족과의 분화, 특히 조모와 부의 자아분화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계도 작성을 통한 원가족 탐색, 다세대 전수과정 설명, 자아분화강조, 내담자의 통찰을 돕기 위해 치료자의 자기개방, 유사사례들을 사용하였다. 또한 치료자는 내담자의 저항을 다루었으며, MRI의 상호작용 의사소통모델을 적용하여 부모로 하여금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대해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치료자는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의사소통방식과 행동방식을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Table 2>와 같다.

1) 치료목표 설정

치료자는 내담자의 복합틱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부모의 갈등배경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고 부부관계 개선을 통한 내담자의 복합틱장애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치료자는 상담초기에 내담자부모가 호소하는 주요문제를 파악하였고 내담자부모가 원하는 치료목표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였다.

“<치료자>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자녀의 틱장애 때문에 오셨단 말이죠. 틱이 없다면 저와 상담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엄마> 그렇죠. <치료자> 지금 치료목표가 틱을 없애는 거. <엄마> 네.” (부모와 첫째딸-1회기)

2) 원가족 경험 탐색

치료자는 가계도 작성을 통해 부모의 자아분화수준, 의사소통패턴 등에 대하여 부모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부모의 원가족 경험을 파악하여 내담자의 복합틱장애 증상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파악하였다.

“<치료자> \*\*이엄마랑 아빠 관계하고 원가족과의 관계를 볼 겁니다. 지금 \*\*이 아빠께서는 상당히 쌓으신 것 같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왜 나오나 그런 건 원가족으로부터 나와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게 \*\*이 틱 증상이 발생한 시점하고 \*\*이 엄마 아빠하고 대화가 안 되는 시점하고 맞아 들어갔어요. \*\*이 아빠가 팀장을 맡으면서부터 더 바빠지기 시작했던거예요. 그 때부터 \*\*이 증상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마 아빠의 의사소통 문제가 있거든요.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서로가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미울 때 대화로 풀 수 없다는 거지요. 대화해봤자 서로 피곤해지는 관계니까요.”(아빠-4회기)

3) 내담자의 통찰력 강화

치료자는 내담자의 상황에 맞는 자기개방하기와 유사사례들을 통해 내담자부모의 통찰력을 강화시켰으며, 내담자부모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담이 18회기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 전혀 변화의 의지가 보이지 않았고, 치료자를 신뢰하지 않았다. 부는 딸의 복합틱장애 증상에 대해 아동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길 위해 치료자는 아동신경정신과 의사를 연계시켜 주었다. 한편 치료자는 부에게 틱장애 사례에 대한 논문을 읽게 함으로써 부의 저항을 줄이고 가족체계 안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Table 2. The Therapist's Intervention Method for the Client with Multiple Tic Disorder and Her Family

Higher category	Lower category	Concept
Establishing therapeutic aim	Problem assessment	· established therapeutic aim by understanding the problem of the daughter who had multiple tic disorder,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parents which was the cause of marital conflicts, and the father's undifferenti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Exploring the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Exploring parents' family of origin relationship	· understood family relationship by exploring the parents' family of origin experiences through genogram and systematically approached the client's problem
	Therapist's self-disclosure	· helped the father recognize and understand her problem through the therapist's personal experience
Reinforcing the father's insight	Providing similar cases	· helped the father understand and change by providing cases that had similar problem with the client's
	Dealing with the father's resistance	· as the father showed resistance, the therapist minimized the resistance by making the parents read research papers on multiple tic disorder cases and referring a psychiatrist
Shedding light on multi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	Explaining expression method that transmit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 explained the similarities in the family members' expression methods, especially expression method of the father and the grandmother.
Explaining dysfunctionally attempted solutions	Explained repeated dysfunctional communication method	· explained that the husband and wife's dysfunctional communication method only offended each other and that this was a vicious cycle
Emphasizing differentiation of self	Father's separating from the family of origin	·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eparating from the family of origin in order to solve the daughter's problem, although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father to do so
	Separating with children	· let children grow on their own by spatially separating them from their parents
	Reducing the father's excessive role	· let the father devote to his role in his nuclear family by reducing his excessive role in the family of origin
Suggestions on new communication methods	Having a two-way conversation	· explained the importance of having a two-way conversation
	Expressing frankly	· reduced misunderstandings by expressing inner feelings frankly
	Expressing clearly	· by using clear expressions, reduced the differences in thoughts and expressed emotions
Suggestions on new behavior patterns	Coming home early and playing with children	· came home early and spent time playing with children

(1) 치료자의 자기개방하기

"<치료자> 저희 어머니와 제가 분리가 안 되었었죠. 마마보이었죠. 아들이 넷인데 제가 막내이다 보니까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제가 미국 유학 갔다와서 와이프가 위암을 겪고 변했죠. 나를 효자였는데.. 우리 어머니가 사사건건 간섭을 해요. 저희 와이프가 음식하는 것에도 일일이 간섭하죠. 남자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 와이프는요. 나중에는 시엄마를 보기도 싫어할 뿐만 아니라 피부 접촉하는 것도 싫고 목소리 듣는 것도 싫대요.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속이 안 좋아서 병원 갔더니 제 처가 위암이 생긴 거예요."(부부-6회기)

(2) 유사사례들기

"<치료자> 제가 지금 어떤 사례를 36회나 상담하고 있어요. 남편이 완벽주의자이고 나이가 50대 중반이세요. 진짜 일하고 가정하고 교회밖에 모르세요. 술, 담배도 모르시고 외도란 있을 수 없고 매일 가정예배도 보시고 새벽예배도 보시고 그런데 딸이 자살을 네 번이나

시도한 거예요. 알약도 먹고 동맥도 끊으려고 했고 아빠는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왜 내 딸이 자살시도를 네 번이나 했을까? 고쳐달라고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빠가 모든 걸 좌지우지해요. 그 가정에서 말을 조심해야 해요. 남을 먼저 배려하는 가정이예요. 그 아빠는 딸이 원하는 걸 다 사주었어요. 예를 들면 딸이 원하는게 바지였는데 바지는 사주었으나 딸이 원하는 바지를 사준 적 없어요. 딸이 아빠 이 바지가 맘에 들어요 하면 야 어떻게 그 바지를 사냐? 하면서. 아빠 마음에 드는 걸로 사 주는 거예요. 딸이 사달라는 바지, 컴퓨터, 책상 모든 걸 사주었어요. 그러나 딸이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아빠가 날 위해서 사준 게 없다는 거예요.”(엄마-3회기)

(3) 내담자 부의 저항다루기

“<치료자> 아동신경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한 번 들어보라 이거예요. 저는 남편만 100% 문제라고 보지는 않아요. <엄마> 그렇죠. 원인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치료자> 서로 맞물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게 좀 나올 거 같아요. \*\*이 아빠가 개선의 지가 없으니까. 제가 \*\*이 아빠한테 전화해서 말씀드릴게요. 18회까지 했는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한 번 아동신경정신과 의사에게 가보시라 그리고 얘기를 듣고 거기에 약물투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다시 한 번 얘기해보자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보십시오.”(첫째딸과 엄마-18회기)

“<치료자> 변화가 없으시니까. \*\*이 아빠도 귀가시간이 늦으시고 <아빠> 또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네요. <치료자> 아니 화살이 \*\*이 아빠한테 돌아간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쓴 틱장애 케이스 보셨어요? <아빠> 네. 아빠가 집에 일찍 들어와서 엄마랑 얘기해서 나아진 거.”(아빠-19회기)

4) 다세대 전수과정 조명

치료자는 부에게 원가족과 밀착되었고, 특히 조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이 부에게 전수되어 자녀들에게 사용하고 있음을 인식시키고, 이로 인해 모와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다세대 전수과정 조명을 통해 설명하였다.

“<치료자> 남편의 이면에 와이프를 자기 명령에 따라야 하는 존재로 보는 거죠. 그건 그 분은 모르는 거고 가정 문화가 그러니까. <엄마> 전문가가 얘기하는 건 들으면서.. 자기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인데 생각이나 그런 거 잘 안 해요. 조상 대대로 보면 그런 거 있을 거

같아요. 할아버님 증조할아버님도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맥락 같은 게 있잖아요. <치료자> 다세대 전수과정이란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유전인자도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 분위기, 자아분화정도, 스킨십까지 다세대 전수가 내려와요.”(첫째딸과 엄마-18회기)

5) 자아분화 강조

치료자는 Bowen의 가족체계 이론에 근거하여 부에게 원가족과 분리를 통해 자아분화를 시도하도록 하였다. 치료자는 부가 원가족과 분리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아분화를 통해 부부관계가 개선되고 자녀의 복합틱장애 증상도 완화된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치료자는 부모에게 자녀 역시 핵가족 내에서 부모와 공간적인 분리를 통해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가족 내에서 과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의 역할을 줄일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1) 부의 원가족과 분리

“<치료자> \*\*이 틱장애는 결국에는 아빠와 친할머니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거 플러스 \*\*이 볼 때마다 아버지가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너 왜 그러니? 하고 간섭하는 거, 엄마 아빠 대화 안 되는 문제가 \*\*이 틱장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거든요. 우선 가능하시면 엄마로부터 분리도 못 했지만 \*\*이하고 분리문제도 들어가셔야 해요.”(아빠-5회기)

“<치료자> 전 가장 좋은 방법은 (아빠가) 어머니(시어머니)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 부부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소라는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고.”(아빠-11회기)

(2) 자녀와의 분리

“<치료자> 자녀들을 분리시켜야 할 거 같아요. 그걸 연습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 아빠로부터 \*\*이의 공간을 확립시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엄마 없으면 잠이 안 온다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불안을 느낀다는 거거든요..”(아빠-11회기)

(3) 부의 과도한 역할 줄이기

“<치료자> 내가 내 역할만 하자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역할만.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남편이 챙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남편들이 저도 그렇고 내가 우리 와이프 역할까지 하려고 해요. 그거는 지금 \*\*이 엄마뿐만 아니라 다른 와이프들도 그렇고 자기가 한 두 살 먹은 애들이 아니란 거죠. <아빠> 그런데 그게

2~3주에 한 번 안 가는 게.. <치료자> 초점을 자꾸 잘못 생각하시는 게 2~3주에 한 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30분 앉아있다 갈지라도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서 2~3주에 한 번 한 시간 정도 있는 게 잘못된 거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아빠-19회기)

#### 6) 역기능적으로 시도된 해결책 설명

치료자는 부모에게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이 반복을 통해 악순환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방식들이 오히려 서로에게 더 상처가 되었으며, 갈등을 야기한 방식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 (1) 반복되는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설명

"<치료자>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에 대해서 아빠가 뭐라고 하실 때면 엄마가 왜 그러냐고 애들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나오는 거예요. 양쪽이 나오시는 패턴이 똑같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계속 악순환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도 없고 두 사람이 감정만 상했을 거예요. <아빠> 네."(아빠-11회기)

#### 7) 새로운 의사소통방식 제안

치료자는 MRI의 상호작용적 의사소통 이론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해왔던 의사소통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을 제안하였다. 치료자는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의 생각을 내놓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주거나 받거나 대화하기

"<치료자> 전 두 분이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하는 대화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아빠 부부관계 말씀하시고 제 부부관계 다 말씀드리고 별의별 얘기 다 하잖아요. \*\*아빠께서는 \*\*이 엄마하고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아빠-11회기)

#### (2) 솔직한 표현하기

"<치료자> 시어머니와 \*\*이 엄마 사이에 서로 대화가 안 되는 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용납하려고 해도 불쾌한 감정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감정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서로 솔직하게 말하자는 거예요. 어머님이 나 며느님이나 그게 곁돌았을 거라는 거예요."(시어머니-10회기)

#### (3)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치료자> 전 이거예요. \*\*이 아빠 내외분이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세요. 여기서 제가 주로 보는 게 이겁니다. 말하는 내용보다는 표현방식을 보는 겁니다."(부부-14회기)

#### 8) 새로운 행동방식 제안

치료자는 부에게 자녀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일찍 귀가하여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행동방식을 제안하였다.

#### (1) 일찍 귀가하여 자녀와 놀아주기

"<엄마> 아빠가 잘 놀아주고 하면 <치료자> \*\*이 아빠가 귀가시간이 빨라져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놀아주면 \*\*이가 좀 달라질 거예요."(부부-16회기)

### 3. 복합틱장애 증상을 가진 내담자 가족에 대한 치료자 개입의 효과성

가족치료 개입 후 부모는 복합틱장애 증상을 가진 내담자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체계 내에 일어나고 있는 부의 원가족 경험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였고 행동을 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결과 내담자의 복합틱장애 증상 완화, 부부관계,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개선되었다. 치료개입을 통한 효과성은 <Table 3>과 같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내담자(딸)의 변화

내담자는 치료자의 개입 후 부모에게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내놓고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복합적으로 나타났던 틱장애 증상도 한 가지 틱증상만 보이고 심한 틱증상은 사라졌다.

"<치료자> 내가 억울했던 거 화난 거 다 엄마한테 얘기해? <첫째딸> 예. <치료자> 친구들한테는? <첫째딸> 친구들한테 너무 상처받은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엄마한테 얘기해요."(첫째딸-9회기)

"<치료자> \*\*이는 좀 어때요? <엄마> \*\*이 많이 좋아졌어요. <치료자>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엄마> \*\*이 틱도 한 번 정도만 하고.. 한 가지만 해요. <치료자> 아~ 그래요. <엄마> \*\*이가 밝아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Table 3. Matrix of the Effectiveness of Therapist’s Intervention in the Client with Multiple Tic Disorder and Her Family

Classification	Change in communication method	Behavioral change
Change in the client(daughter)	· talked frankly to the parents	· remission of the daughter’s multiple tic disorder
Change in the father	· became considerate of the mother’s feelings and had a conversation with her	· spatial and emotional separation from the family of origin · came home early more often
Change in the mother	· had more conversation with the father	· accepted the father’s demands and tried to comply with his requests
Improvements in the marital relationship	· had a conversation together	· marital conflicts reduced · sexual relationship improved
Improvements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 had parent-child conversation	· exercised and played with children · tried to think on children’s shoes and acted upon it · spatially separated with children by not sleeping with them

밝아졌다 그러고. <치료자> 한 가지 틱은 어떤 틱이예요? <엄마> 눈이요. <아빠> 눈에 뿔 만큼 뚜렷하게 심한 틱은 없어요. <엄마> 많이 나아졌어요.”(부부-23회기)

2) 부(父)의 변화

부는 원가족과 밀착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밀착된 원가족 경험으로 인해 딸의 복합틱장애 증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또한 부는 사사건건 모든 일에 간섭하는 조모로 인해 모(부인)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모와 공간적으로 분리하였고 정서적으로도 분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부는 원가족 내에서 과도한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원가족과 거리를 유지하고 핵가족 내에서 모를 배려하고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가족구성원들은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게 되었다.

“<치료자> \*\*이 아빠가 배려해주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대화는 어떠세요? <엄마> 대화는 옛날 한창 냉전기보다 조금씩 좋아졌죠.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러는 건 기분 안 나빠요.”(엄마-20회기)

“<치료자> 상담하시고 나서 귀가시간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빠> 일찍 들어가는 횟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아빠-5회기)

“<치료자> 아빠하고 부모님하고의 관계는? <엄마> 가족치료 때문에 분리가 많이 되었죠~ 그거는 정말 획기적으로 되었죠. <치료자> \*\*이 문제를 머느리 하나가 잘못 들어와서 그렇다고 보시는 거예요? <엄마> 매사를 그렇게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 마음이 안 생기잖아

요. 다 여자 탓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도 서운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치료받기 전보다는 상황들이 많이 변했으니까 나아지셨죠.”(엄마-21회기)

“<아빠> 저하고요~ 불편하더라도 예전하고 다른 점이 있죠. 미안하거나 서운해서라도 어떻게 더 헤드될 거 같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마음에 변화가 있습니다. <엄마> 전 떨어져 있으니까 편하죠.”(부부-15회기)

3) 모(母)의 변화

모는 부와의 가치관이 상충하고 서로 생각하는 기준이 차이가 너무 커 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힘이 들었고, 대화가 전혀 되지 않아 잦은 부부싸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치료자의 개입 후 모는 부의 원가족 경험을 이해하고 부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부에게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서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되었다.

“<치료자> \*\*이 아빠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잖아요. 현재 그러한 요구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냐는 거예요? <엄마> 요구사항 있으면 받아들이죠..”(부부-23회기)

“<치료자> \*\*이 아빠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엄마> 예. <치료자> 이 시점에서 \*\*이 엄마하고 대화가 잘 되고 그러면 남편이 힘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저도 그래서 남편이 원하는 걸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전 솔직히 플라토닉 사랑만 해도 되는데 남편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엄마-20회)

4) 부부관계 개선

모는 부가 늦게 들어오면 항상 자고 있었는데 이제는 자지 않고 부를 기다리고 있으며, 부부간에 싸우지도 않고, 성관계도 원만하게 변화하였다.

“<아빠>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해요. <치료자> \*\*이 어머니가요? 전에 비해 어떤 변화가 있으신데요? <아빠> 예를 들어서 거의 두세 달 시점으로 보면 그 이전에는 제가 6시 20분쯤 나가거든요. 배웅 나온 거 다섯 손가락에 들 정도인데 그냥 새벽에는 잔다 이거예요. (중략) 그런데 요즘은 늦게 들어가도 안 자고 기다리는 거.”(아빠-4회기)

“<치료자> 네가 봤을 때 엄마 아빠 부부관계는 어떠신 거 같니? <첫째딸> 좋으신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말

하고요. 싸우지도 않고.”(첫째딸-9회기)

“<치료자> \*\*이 엄마가 \*\*이 아빠한테 대하는 거 어떻게 변하셨어요? <엄마> 저도 많이 변했어요. 많이 말하고 안아주고 스킨십해요. <치료자> 성적인 거는요? <엄마> 그것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치료자> \*\*이 아빠도 그거는 노력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두 분이 성교하시는 거 횟수 느셨어요? <엄마> 늘었어요. 예전엔 자다가 건드리는 거 싫었는데 지금은 자다가도 하고.”(엄마-20회기)

5) 부모-자녀 관계 개선

부는 일찍 귀가하여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놀아주었으며, 모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부모는 잠을 잘 때 자녀와 공간적으로 분리를 하였다.

“<엄마> 아이들이 이제 따로 자요. <치료자> 언제부터요? <엄마> 지난주부터. 저희가 다른 방에서 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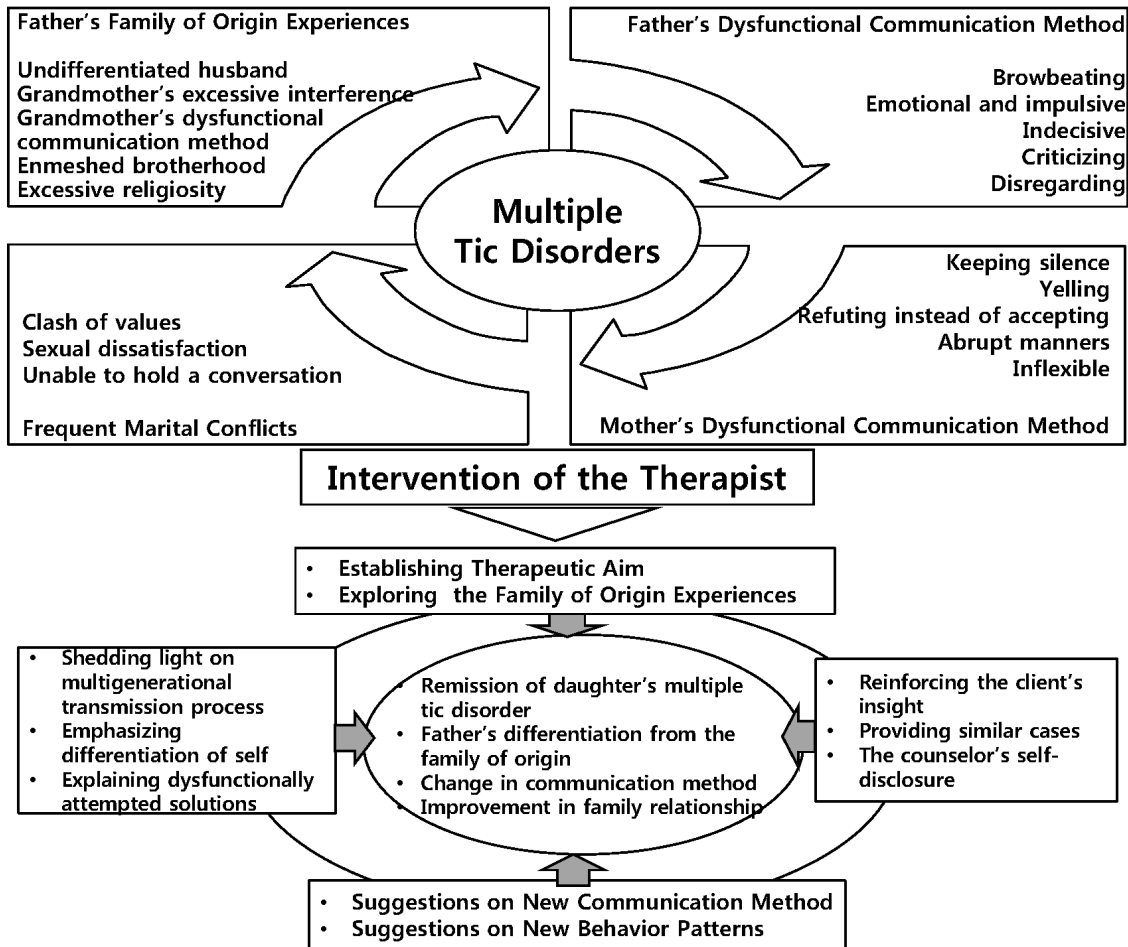


Figure 2. Network of Overall Analysis

\*\*이는 잘 때 내가 옆에 있어주고 일어날 때 옆에서 있어주니까 따로 자는 거 몰라요.”(부부-16회기)

“<치료자> 아빠하고 \*\*이하고 관계는 어떠세요?  
<아빠> 시간이 나는 대로 같이 놀아줬죠. <치료자> 주  
중에 시간을 어떻게 내주셨어요? <아빠> 많게는 4~5  
일, 적게는 2~3일 정도.”(부부-23회기)

지금까지 앞에서 언급한 내담자의 복합틱장애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 치료자가 개입한 치료과정의 전체적인 분석의 네트워크는 <Figure 2>와 같다.

## V. 결론 및 논의

###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부의 밀착된 원가족 경험과 부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가치관의 상충, 성생활의 불만족, 대화단절로 잦은 부부싸움을 하는 부모로 인해 복합틱장애 증상을 보이는 딸에 대한 가족치료적 개입과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복합틱장애 증상이 있는 딸의 문제로 모가 상담을 의뢰하여 개입한 가족치료 사례연구로 참여한 가족은 부모, 딸 2명으로 구성된 4명의 핵가족과 조모를 포함하여 총 5명이다. 상담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3회기 실시하였으며, 추후상담을 2009년 4월에 1회 실시하여 총 24회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사례는 밀착된 부의 원가족과 분리를 위하여 Murray 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적용하였고 MRI의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이론을 근거로 가족구성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의사소통방식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개입방법으로 딸의 복합틱장애 증상이 완화되었으며, 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내담자의 복합틱장애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父)의 원가족 경험과 부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 부모의 잦은 싸움으로 나타났다. 부의 원가족 경험은 분화되지 않은 남편, 조모의 심한 간섭, 조모의 역기능적인 표현방식, 밀착된 형제관계, 과도한 신앙생활로 나타났다. 부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은 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음박지르기, 감정적이고 즉흥적 표현, 우유부단한 표현, 지적하기, 무시하기)과 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침묵하기, 소리 지르기, 수용하지 않고 맞받아치기, 애교가 없고 무뚝뚝한 표현, 융통성이 없는 표현)이 포함되었다. 또한 부모의 잦은 부부싸움에는 가치관의 상충, 성생활의 불만족, 대화단절이 포

함되었다. 특히 밀착된 부의 원가족 경험은 모에게 심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부부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딸의 복합틱장애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치료자는 개입방법으로 치료목표설정, 원가족 경험 탐색, 내담자의 통찰력 강화, 다세대 전수과정 조명, 역기능적으로 시도된 해결책을 설명하였고,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가족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방식을 인식하게 하였다. 또한 치료자는 자아분화 강조(부의 원가족과 분리, 자녀와의 분리, 부의 과도한 역할 줄이기), 새로운 의사소통방식 제안(주거니 받거니 대화하기, 솔직한 표현하기, 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새로운 행동방식(일찍 귀가하여 자녀와 놀아주기)을 제안하였다.

셋째, 치료자 개입의 효과성은 가족구성원의 의사소통방식과 행동방식의 변화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들이 치료자가 제안한 새로운 의사소통방식과 행동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가 개선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딸의 복합틱장애 증상 완화로 이어졌다. 치료자의 개입 이후 가족구성원들은 부의 원가족과 공간적·정서적으로 분리하였고, 자녀와도 공간적으로 분리를 하였다. 또한 문제해결을 위해 치료자가 제안한 새로운 의사소통방식과 행동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각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가족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딸의 복합틱장애 증상도 호전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원가족 경험과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은 부부갈등을 초래하여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Jang · Lee, 2011)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2. 함의

본 연구에서 치료자는 부모에게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역기능적으로 시도된 해결책에 대해 설명하였고 새로운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치료자의 다양한 개입방법은 가족구성원들의 의사소통방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해 부부간,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가족구성원들 간의 관계 회복과 변화로 인하여 자녀는 복합틱장애 증상이 감소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의 함의는 복합틱장애 증상을 보이는 자녀의 문제를 약물치료가 아닌 가족치료 접근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부의 원가족과의 미분화, 부모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방식은 세대 간에 전수되어 자녀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으며,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료자는 부모의 원가족 경험에 대한 이해와 가족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방식의 변화가 내담자(딸)의 틱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개입하였다. 이러한 개입과정을 통해

Bowen의 가족체계이론과 MRI모델에 근거한 치료자의 개입방법이 복합틱장애 증상을 보이는 딸의 문제를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실천현장에서 틱장애 증상을 보이는 자녀가 있는 가족들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효율적인 접근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단일사례이기 때문에 복합틱장애 증상을 보이는 자녀에 대한 개입의 효과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복합틱장애 증상을 보이는 자녀문제에 대한 다양한 가족치료모델의 적용 사례들이 연구되고 개입의 효과성을 볼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기대한다.

#### REFERENCES

- Kim, Y. T.(2002). *Family Therapy*. Seoul: Hakjisa.
- Lee, Y. B., Sin, Y. H., Gwon, J. S., Park, T · Y., Choi, S. L., Choi, H. M.(2008). *Family Therapy Models and Application*. Seoul: Hakjisa.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Ed.).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Duncan, B. L., Solovey, A. D., & Rusk G. S.(1993), *Changing the rules, A client-directed approach to 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a, Y.(2004).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Depression on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2(2), 42-52.
- Jang, Y. & Lee, Y.(2011). Communication among parents and children: effects on marital conflict and on children's stress and problematic behaviors.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9(3), 183-205.
- Jo, H. & Kong, M.(2005). The case study of tic disorder with child under parental conflicts by using the mutual scribble story making.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9(2), 31-45.
- Kim, J. H.(2012). *The mediating effects of children's ego-resilience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s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 degree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im, Y.(2004). The comparis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awareness between children with tic disorder and normal children by kinetic family drawing. *Journal of Play Therapy*, 7(1-2), 1-12.
- Lee, E.(2009). Tic disorders and Art Therapy.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14. 387-390.
- Lee, K.(2002). The effects of family art therapy for mother-child on problem behavior and emotional change in tic disorder. *Korean Journal of Art Therapy*, 9(2), 111-138.
- Lee, Y.(2005). A study of maternal rearing variables and home environments related to tic disorder of children.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8(1), 37-48.
- Nichols, N., & Schwartz, R(2012), *Family therapy: Concepts and methods (10th ed.)*, Boston: Allyn & Bacon.
- Park, M. J.(2008). *Self-differentiation and communication*. Open Spirit Humanities Research. 227, 15-20.
- Park, T. & Moon, J.(2010a). Family therapy with a couple threatening divorce.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8(1), 27-62.
- Park, T. & Moon, J.(2010b). Using family therapy to treat a child's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8(1), 107-130.
- Park, T. & Park, J.(2010). Family therapy for a child with a tic disorder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8(2), 1-30.
- Park, T. & Yu, J.(2012a). A case study on family therapy for a child with anger controlling Proble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30(3), 119-133.
- Park, T. & Yu, J.(2012b). Family therapy for a child with self-injurious behavior.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20(2), 225-251.
- Schlanger, K., & Anger-Diaz, B(1999), The brief therapy approach of the Palo Alto Group. In D. M. Lawson & F. F Prevatt (Eds.), *Casebook in family therapy*. New York: Brooks/Cole.
- Sim, M., Lee, J., Kim, T., Lyu, Y., & Kang, H.(2007). A study on Oriental-Medical Understanding of Tic Disorders. *Journal of Oriental Neuropsychiatry*, 18(2), 91-114.
- Song, J., Hong, J., Doh, J., Kim, H., Lim, M.(2011).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in Childhood Tic Disorder : A Case of Report.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2(1), 38-43.
- Shoham, V., Rohrbaugh, S., & Patterson, J.(1995), *Problem and solution-focused couples therapies: The MRI and Milwaukee models*. In N. S. Jacobson, & A. S.



- Gurman (Eds.), *Clinical handbook of couple therapy* (pp. 142-163).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Yang, H. & Park, Y.(2004). The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 stress coping behaviors an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13(6), 847-860.
- Watzlawick, P., Weakland, J., & Fisch, R.(1974), *Change: Principles of problem formation and problems resolution*. New York: Norton.
- Weakland, J. H.(1993), *Conversation-but what kind?* In S. Gilligan, & R. Price (Eds.), *Therapeutic conversions* (pp. 136-145). New York: Norton.

- 접수일 : 2013년 07월 05일
- 심사일 : 2013년 07월 30일
- 게재확정일 : 2013년 09월 26일